



삼성 인수 '데이코'美서 사업비전 공유

미국 '데이코'가 15일 (현지시간) 뉴욕에서 '비전메이커'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데이코의 사업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코는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럭셔리 주방 가전 브랜드다. 국내 프리미엄 아파트에 빌트인 제품이 공급 예정이며, 내년에는 프리미엄 쇼룸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NH농협은행 호치민 대표사무소 개소식

NH농협은행, 호치민시에 대표사무소 개설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베트남 호치민시에 제2호 현지 채널인 호치민 대표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창희 농협은행 호치민사무소장(왼쪽부터), 응웬민치 아그리뱅크 이사, 응웬호앙밍 베트남중앙은행 호치민부지점장, 김윤수 농협은행 글로벌사업부장, 조승국 농협은행 하노이지사장, 김범구 대한민국대사관 국제관, 이강훈 금감원 하노이사무소 부소장 등이 지난 16일 NH농협은행 호치민 대표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시상식

신한카드의 '제17회 꼬마피카소 그림축제'의 시상식을 지난 16일 오후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본상 수상자 9명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앞줄 오른쪽 두번째),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앞줄 왼쪽 첫번째)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한카드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단, 연탄나눔 봉사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단이 11월 2일, 12일, 16일(2회)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대전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직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국타이어 임직원들로 구성된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단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대전시 대덕구 일원 저소득 가정에 총 20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한국타이어



프랜차이즈산업협, 함께하면 행복한 봉사활동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회봉사위원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 정부시 '이삭의 집'을 찾아 '제33차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함지훈 벨킨스 대표(앞줄 왼쪽부터), 이정훈 스키노백팩 대표, 오종환 토프레스 대표, 최성수 청담동말자 싸롱 대표, 김익수 채선당 대표, 박명진 미소바이오 대표,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 이승현 황태장인 대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美中무역전쟁 누가 승자일까



**김민 소장의
탕탕평평**

간혹 정경유착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곤 한다. 필자의 견해로 그것은 극히 이론적인 발상이지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동안 세계 동향을 보면 G2,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등장 이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줄기차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대적 약소국의 비애이다.

권력을 유지하고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모든 권력자들이 심심찮게 이용하는 수단이 바로 '경제'이다. 의미 없는 경제이슈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경제적 위기감을 조장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단골 메뉴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한국과 일본만 긴장할 뿐 실제로 세계경제에 뚜렷하게 파장을 일으킨 것은 사실상 없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내용이 없는 경제이슈는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무역전쟁을 선포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국 내 콘크리트 지지기반인 철강업 중심의 로스트밸리 즉 백인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자국 내 고용창출을 미끼로 지난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의 선전을 만들어 냈다. 사실상 지금의 철강업은 과거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현재는 자본집약적인 사업 분야이다. 대선 전부터 자신에게 불리했던 러시아 스캔들과 섹스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그에게는 더 큰 이슈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다. 중국인에게 마오쩌둥의 기억을 없애고 이미 선포한 장기집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한 수 위인 미국과 양강구도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천안문 사태나 중국 내부의 집결과 단속을 위해서 시진핑에게 미국과의 전쟁선포는 대국다운 가장 큰 신의 한 수일 것이다.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역시 대국의 큰 정치임에는 틀림없는 모양이다. 애꿎은 일본과 대한민국만 기습 줄이기를 반복할 뿐이다. 사실상 G2의 무역전쟁은 트럼프도 승자가 될 수밖에 없고, 시진핑 역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군사력을 통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경제전쟁이기 때문이다. 군사전쟁이라면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었지만 경제전쟁은 양쪽 모두 승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세계 전체 교역의 단지 2%이다. 우리가 미중 전쟁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2%수준의 교역량을 양강이 차지하고 있을 뿐인데 그 정도로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사실상 크게 가자화 될 가능성이 없는 양강의 대립구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긴장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때부터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1조원 정도의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에 가까운 2조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공약처럼 내세워왔다. 우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상 보편 이것은 동맹도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상 갑을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튼 한미FTA 재협상 등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난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는 정치 같지도 않은 정치이슈들로 골목대장 정치나 하고 있고 동시에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자신들의 집권을 견고히 하며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단언컨대 미중은 어느 쪽도 패자는 결코 없으리라 확신한다. 그들은 양강의 긴장감을 계속 조성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견고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중은 정치와 경제에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있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히 한 그루의 나무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도 경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테일러폴리 정치연구소장

르노삼성, 독거노인 위해 '사랑의 쌀 2000kg' 기부

**동호회 회원, 자발적 참가 신청
밥상공동체 사회복지관에 전달**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르노삼성 전사품질 고객지원팀 및 동호회 회원 18명이 참여한 '사랑의 쌀' 기부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르노삼성과 동호회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랑의 쌀 2000kg을 기부했으며, 저소득 고령의 독거노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쌀을 전달하고 무상급식을 제공했다. 또 어르신 공동작업장 불면 및 화장지 조립 지원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쌀 기부 봉사활동은 QM6 마니아 클럽, SM6 오너스 클럽 등 르노삼성 동호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가 신청으로 진행됐다.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동호회 회원 16명이 '사랑의 쌀' 기부와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황은영 르노삼성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르노삼성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

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인사

-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 손용호
-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승진)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 권준영 △양식산업과장 조성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 전보) △ 기획조정실 김범근 박영훈 △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원재 △ 심사평가처 박정오 △ 기금지원처 이만섭 △ 리스크관리실 현종석 △ 홍보비서실 서석민 △ 정비사업금융1센터 조흥연 △ 정비사업금융2센터 위광신 △ 남부도시금융센터 권혁태 △ 임대주택금융2센터 전인석
- ◆동양생명 (사업부장 승진) △ 대구경북 송인봉 (사업단장 승진) △ GA서울 최호준 △ GA영남 김길수 (사업부장 전보) △ 수도 김인영 △ 서울 김경우 △

- 충청 한흥원 △ 호남 채창우 (사업단장 전보) △ GA수도 김진선 △ 방카서울 김양석 (팀장 전보) △ 교육팀장 유승택 △ 방카슈랑스팀장 조현석
- ◆연합뉴스 △디지털융합본부장 권정상 △정치에디터 김현재 △동남아총국장 내정 김선한 △논설위원 조재희 △콘텐츠평가위원 최재석 정규득 △산업부장 정주호 △한반도부장 장용훈 △부산취재본부장 신정훈 △전북취재본부장 인교준 △충북취재본부장 유택형 △제주취재본부장 진병태 △동포·다문화부장 황정우 △출판부장 권혁창 △IT운영부장(보안팀장 겸임) 안철수 △편집국 외교안보팀장 조준형 △편집국 영문북한팀장 장재순 △편집국 독자팀장 이충원 △미디어기술국 기획지원팀장 김일중 △마케팅본부 신사업팀장 김오성 △영성마케팅부 마케팅1팀장 권태일 △영성마케팅부 마케팅2팀장 김석환

- △영성마케팅부 마케팅3팀장 유정우
- 부음**
- ▲오종호 씨 별세, 성룡·학룡(에스알씨 대표)-지은·주영 씨 부친상 = 18일, 경향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7시. 055-750-8448
- ▲이희갑 씨 별세, 김병철(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장) 씨 장인상 = 18일 오전, 대구 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발인 20일 오전 7시 ☎ 053-324-9371
- ▲정애희 씨 별세, 관록(사업)-용진·세진 씨 모친상, 공훈회(위키트리 대표이사)-정용규(대전 시카고교회 원장) 씨 장모상 = 18일 새벽 3시,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20일 오전 6시. ☎ 062-521-4444